

###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궁금해요

# 해법은 '작가들과의 수다'에서

독서광은 아니더라도 웬지 이맘때면 단 한권의 책이라도 읽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기 마련. 하지만 막상 책을 고르려 하면 '결정 장애'에 걸려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최명희문학관은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인·작가와의 수다: 그대를 위한 문장 강화'를 오는 9월 2~3일 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전한다.

매일 4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전북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24명의 시인과 작가가 프로그램을 이끈다. 매시간 장르별 3명의 문학인이 함께 한다.

각각의 시간은 수필·생활글, 소설, 시, 희곡·방송극, 시·수필, 평론으로 나뉘며, 함유자가 늘어난 동시·동화부문은 여성·남성작가로 구분해 두 번 진행된다.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1회차 수다에는 아동문학가 김지연·박서진·박예분 씨가 동시·동화 읽기와 쓰기,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할 동시·동화 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다.

2회차 주제는 수필과 생활글로, 여행기록서 '길 위의 풍경'으로 인기를 끈 김병용 소설가와 원광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책임진 박태건 시인, 라디오방송작가로 활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환  
최명희문학관, 내달 2일  
'그대 위한 문장 강화' 개최**

동한 김정경 시인이 맡았다. 방송 글쓰기, 여행 글쓰기, 감성적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 내 삶을 담은 생활 속 글쓰기 등을 화두로 이야기한다.

소설을 주제로 한 3회차 시간은 이광재·서철원·장마리 소설가가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로 독자와 만날 예정이다.

4회차에는 '전주사투리 시인'으로 알려진 이병초 시인과 그림에세이 '누에'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형미 시인, 올해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진창운 시인이 함께한다.

이어 3일에는 희곡과 방송극으로 1회차 수다를 갖는다. 극작가 광병창·최기우 씨와 김치동의 FM 모닝쇼의 김성숙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광병창 씨는 무대극 쓰기와 무대극을 더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최기우 씨는 전북의 콘텐츠를 소재로 연극·창극·국악뮤지컬·칸타타 등 다양

한 무대극 쓰기를 소개한다. 2회차 시간은 남성 아동문학가가 들려주는 동시·동화 읽기와 쓰기, 동시집 '천재 시인의 한글연구'의 경중호 씨와 교육에세이 '학교가 돌아왔다'의 저자 윤일호 씨, 장편동화 '할아버지의 뒤주'로 인기를 끈 작가가 이준호 씨가 독자를 만난다.

전북을 대표하는 여성시인 겸 수필가인 김용옥·나혜경·송희 씨는 3일차에 아포리즘(aphorism)과 몸 글쓰기, 누구나 행복해지는 글쓰기, 인간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해 들려준다.

'시인·작가와의 수다'의 마무리는 평론, 문학평론가 정철성·문신 씨와 영화평론가 신귀백 씨가 강사로 나서 영화·연극·문학·드라마 비평을 비롯해 내 삶의 가까운 곳에 있는 평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최명희문학관 장성수 관장은 "시인·작가와 만나는 이 프로그램은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독자에게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자 글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라면서, "특히 문학 지망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멘토'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전주사업안산도서관 230-1872 또는 최명희문학관 284-0570.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목공 교육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시제품제작소 '목공 장비실' '목공 교육실'

## 전통문화 산업·활성화 '촉매제'

**교육실, 짜맞춤 기술전수 등  
교육 진행으로 창업활동 지원  
목공기계 장비교육 매달 무료 진행**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지하 1층에 문을 연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가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해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호응은 물론 전통문화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시제품제작소는 목공기계기가 있는 '목공 장비실'과 목공 관련 교육이 이뤄지는 '목공 교육실'로 구성돼 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목공교육실은 전통 짜맞춤 기술전수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초청 워크숍인 '목공 데이', 목공기계·장비 무료 교육,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 진행을 통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짜맞춤 전통기술 전수교육'은 수공구 활용법과 접통고구 제작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목공 분야 전문가를 통해 목공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목공이 있는 날(일명 목공데이)'은 목공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있다.

또한 최신 목공기계를 다루는 '목공기계·

장비 교육'은 매달 선착순 5명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기계의 작동원리와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시제품제작소의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교육 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현재 모집 중이다. 한 단체(또는 개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작초기 단계 제품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예비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제작과정의 어려움을 전문가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다.

한편 시제품제작소는 올해 4분기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목공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공구를 활용해 하루 만에 다이나믹 도구(숫가락, 젓가락, 도마 등)를 만드는 일명 '원데이 클래스'와 목공셀프제작을 취미로 하는 도민을 위한 주·야간 목공셀프제작 교육을 9월 신설할 예정이다.

오대수 원장은 "전통문화시제품제작지원소가 전통문화 제조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창조센터 홈페이지(www.tpcente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30일 군산예당서 송인섭 트리오 공연

가을의 문턱에서 아름다운 재즈선율을 선보일 송인섭 트리오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로 군산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하우스콘서트는 공연자를 중심으로 관객들은 마루나 가까운 객석에 앉아 즐길 수 있는 공연의 형태로,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한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송인섭트ριο는 리더 송인섭과 드러머 김대호, 피아니스트 전용준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로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을 음표보다 쉽표에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순간을 담아낸 재즈 선율을 청중들에게 선물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완주문화재단 '청춘기획단' 1기 출범식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지난 25일 역사교육음악극 '삼례, 다시 봄!'의 프리젠티 프로그램 기획·제작할 '청춘기획단: 완주' 1기 출범식을 가졌다.

'청춘기획단: 완주'는 유식대 재학생들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같은 일련의 프로젝트가 멈춤 없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끝까지 '완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획단은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유식대학교 학생 7명으로 이뤄졌다.

문예창작학과 4학년 박신우, 국악과 4학년 박명희, 아동복지학과 4학년 이민주, 호텔항공관광학과 3학년 이원재, 경찰행정학과 3학년 김종근, 기계자동차공학과 3학년 이효준, 실용무용지도학과 2학년 이대준 등 대학생들은 오



는 10월 열리는 '삼례, 다시 봄!'의 프리젠티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공유테이블 자리를 갖고,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의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내달 22일까지 동리대상 후보자 모집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제27회 동리대상' 후보자를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이만우)가 동리 신재효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또는 판소리진흥에 기여한 사람(법인포함)을 선정하는 상이다.

국내 판소리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정받

고 있는 이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추천은 국·공립 국악 관련 기관·단체, 판소리 관련단체, 국악대회(훈격:대통령상) 주관단체에서 가능하며, 추천서와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동리대상 심의위원회의 비공개 토론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제27회 동리대상'의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고창=김영식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